

# 2019년도 제2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2. 4.(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 위원(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2건(안건번호 제2019-158574호~158623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위의 안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저작권법 133의 3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다만 이미 전송중단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할 것임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8574호~158623호(52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본건 심의안건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특히, 이번 안건들은 모두 웹하드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영상저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안건번호 제2019-158574호~158623호는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D 위원 : 금번 심의 대상은 ‘▲▲▲▲’ 등 5개 웹하드 이용자들이 게시한 52개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것으로, 심의 안건인 복제물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상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됨.

이 건 복제물의 복제·전송자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제물 파일의 직접전송 방식으로 각 저작물을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 중인 영상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며, 모두 가결 의결임(다만 피신청인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

2019년 제277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13.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오영주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